

에스라-느헤미야 개관 (3)

1.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

에스라 1-6장	약 58년 간의 공백	에스라7-10장	약 13년 간의 공백	느헤미야서
스룹바벨의 지도력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서의 회복		느헤미야의 개혁 주도 아래의 재건
539-516 B.C		458B.C.		445-426 B.C.
성전		백성		성벽
학개, 스가랴		-		말라기
1차 귀환 (약 5만 명)		2차 귀환 (약 2천 명)		3차 귀환

출처: 브루스 윌킨스, 케네스 보아 <한눈에 보는 성경> (연대는 조정됨)

2. 느헤미야서의 특징

- (1)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제사장이라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도덕적 개혁과 성벽을 재건한 정치인
- (2)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끄는 내용으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게 함.
- (3) 세속과 거룩함의 경계를 암시하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드러냄
 ⇨ 586B.C.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가 권력을 잡은 이후, 성벽이 재건되었음 (464 B.C.이후). 강력한 기도와 단호한 결단으로 52일 만에 재건.
- (4) 성벽 재건 이후,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갱신 운동이 나타남. 13년 전의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나타남. ⇨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하여 율법을 낭독함 (⇨ 말씀 부흥)

3. 느헤미야서의 구조

제1부 성벽재건 (느1-7장)		제2부 백성들의 영적 갱신 운동 (느8-13장)	
제3차 포로귀환 (1-2장)	성벽재건 (3-7장)		

4.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

- (1) 무너진 성벽에 대해 알고 중보기도하는 느헤미야
 (느1:3-4)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 (2)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느2: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 (3) 백성을 독려하고, 반대자들에게 응답하는 느헤미야
 (느2:17)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2: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 (4)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공격, 조롱, 낙담, 재산 강탈)
 (느4:7-8)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5) 백성들의 부역을 이해하고 돕는 모범적인 느헤미야

(느5:17)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일백 오십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찌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6) 대적자들의 음모 (타협, 비방, 내통사건)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결단

(느6: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6: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6:11-12)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7)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

(8) 언약이 갱신됨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순종)

(느8:5-6)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8: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

(느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10) 백성의 영적, 도덕적 결단 (이방인으로부터 분리, 레위인 후원, 안식일 회복, 통혼금지, 회복사역)

(느13:1-3)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느13:12-13)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13:16-17)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13:23-25)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 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